



18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부천고와 부산고의 16강전에서 6회말 우익수 앞 안타로 진루한 부산고 제용진이 윤희승의 내야 땅볼때 2루에서 포스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부산고, 무등기 첫 승부치기 8강

박재현 3피안타·9K 10이닝 완투 승리 이끌어  
경기 고지원 대회 첫 완봉승... 개성도 8강 안착

마무리 지었다. 10이닝 완투를 장식한 부산고 박재현은 3피안타 6사사구 9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 개성고 4-2 군산상고

개성고가 홈에서 4명의 주자를 잡아낸 끝에 군산상고를 4-2로 제압했다.

군산상고가 1회말 1사 3루에서 폭투로 먼저 1점을 얻었지만 2회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1사 1·3루 군산상고의 포수 차희태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았고, 강동우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개성고가 2-1로 앞서나갔다.

군산상고가 여러 차례 찾아온 역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2회말 1사 2루, 백진영의 중전안타 때 홈에 들어오던 2루 주자 고석찬이 아웃됐다. 패스트볼로 2루까지 진루했던 백진영마저 장혁의 좌전안타 때 홈 뛰어들다 아웃됐다.

도루 실패도 이어졌다. 6회말 무사 2루에서 장혁이 도루에 실패했다. 포수 타격방해로 출루한 박재현이 보내기 번트와 도루로 3루까지 밟았지만 회심의 홈 스틸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득점 없이 이닝이 마무리됐다.

군산상고의 아쉬운 플레이가 이어진 사이 개성고는 7회 밀어내기로 한 점을 보낸 다음 8회 상대 송구실책으로 4-1까지 도망갔다. 군산상고는 8회말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

### 청원고 0-3 경기고

청원고의 대회 2연패가 무산됐다. 지난 대회 우승팀 경기고가 타선의 불발로 0-3으로 경기고에 완봉패를 당했다.

1회 경기고의 기동력이 발휘됐다. 1회초

볼넷으로 나간 경기고 조원성이 도루로 2루까지 출루한 뒤 이성곤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다. 경기고는 2회 상대 유격수와 2루수의 잇단 송구실책으로 손쉽게 1점을 더하며 2-0의 리드를 이어나갔다.

청원고는 3회 1사에서 지난 대회 MVP인 박상욱을 마운드에 올리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지만 쫓겨잡 타선이 터지지 않았다.

2회 1사 1·2루의 찬스를 삼진과 땅볼로 무산시킨 청원고는 6회 다시 추격의 기회를 잡았다.

1번 우경삼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투혼으로 출루한 뒤 최병근으로 2루를 밟았다. 하지만 박세민의 우익수 플라이 때 스타트를 끊었다가 아웃 되면서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9회에도 청원고의 선두타자 박세민이 2루타로 출루했지만 역시 후속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는 3-0 경기고의 승리로 끝났다. 9회까지 경기고 마운드를 지킨 고지원은 6피안타 1사사구 9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대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부천고 1-2 부산고

부산고가 대회 첫 승부치기 끝에 부천고를 꺾고 8강에 안착했다.

부산고가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넷째날 경기에서 부천고를 2-1로 꺾었다.

9회 초까지는 부천고의 리드가 이어졌다. 3회초 김호령의 3루타로 공격의 포문을 연 부천고는 볼넷과 유격수 송구실책으로 1사 만루 찬스를 만든 뒤 한대현의 땅볼로 1점을 뽑았다.

부천고 투수 박인규는 8회까지 11개의 탈삼진으로 삼진 퍼레이드를 펼치며 1점의 리드를 지켰다.

하지만 9회말 투 아웃,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산고 도태훈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진영호의 안타로 1사 1·3루, 대타 이정훈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윤희승이 유격수 옆을 스치는 동점타를 때려내며 승부를 연장장으로 끌고 갔다.

대회 첫 승부치기에서 부천고는 희생번트로 1사 2·3루를 만들었지만 땅볼과 플라이가 나오면서 점수를 내지 못했다. 반면 부산고는 몸에 맞는 볼로 얻은 무사 만루에서 김창혁의 끝내기 안타로 2-1을 만들어 경기를

### 오늘의 무등기 야구

8강전

- ▲ 진흥고-동성고 (10시)
- ▲ 공주고-선린인터넷고 (13시)
- ▲ 부산고-개성고 (15시30분)
- ▲ 경기고-아람고와 인천고 승자 (18시)

### ▼ 부산고 박재현

### 무등기 스타

### 경기고 고지원 ▼

## 슬라이더 일품... 위기관리 뛰어난 체인지업 등 구질 다양한 기교파

“대회 첫 승부치기이다 보니 마지막 공 던질 때 너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중요할 때 점수를 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고 박재현(18·3년)이 18일 부천고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선발로 나와 10이닝 동안 3피안타 6사사구 9탈삼진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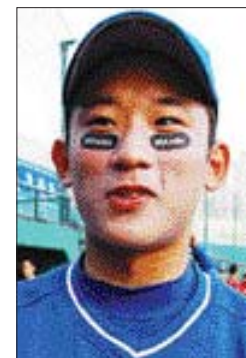
언더 투수인 박재현은 공이 빠르진 않지만 위력적인 슬라이더와 맞춰 잡는 투구로 부천고의 타선을 공포 뒤흔들었다.

특히 승부치기로 들어선 10회 초 1사 만루상황에서 두 명의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는 등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상대 투수가 워낙 위력적인 공을 던져서 점수를 일찍 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팀을 믿었기에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잘 던질 수 있었습니다.”

부산 대면초교 5학년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박재현은 176cm의 키에 70kg으로 다소 왜소한 체구이지만 정확한 제구력을 앞세운 부산고의 에이스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빠른 공을 던지진 못하지만 다양한 구질로 상대 타선의 타이밍을 뺏는 승부를 펼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기고의 기교파 투수 고지원(17·2년)이 18일 청원고와의 대회 16강전에서 선발로 나와 9이닝동안 6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하며 대회 첫 완봉승을 거뒀다. 특히 사사구를 1개밖에 내주지 않는 뛰어난 제구력으로 청원고의 타선을 잠재웠다.

고지원은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질로 청원고를 상대했으며 결정구로 체인지업을 구사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특히 2회 1사 1·2루 상황에서 두 타자를 삼진과 땅볼로 처리하는 등 2학년 담지 않은 침착함으로 경기를 압도해나갔다.

“직구보다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했는데 청원고 선수들이 잘 말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8강까지 올랐으니 꼭 우승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2cm 키에 몸무게가 70kg에 불과한 작은 체구이지만 정확한 제구를 자랑하는 고지원은 자신감이 가장 큰 무기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무등기 그라운드에 ‘WBC영웅’ 이용규

티배팅·캐치볼 등 기술 훈련 본격 시작  
후원 약속했던 부산고 정재훈 찾아 격려도

무등기 우승을 향한 고교야구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한 무등경기장, KIA 타이거즈 이용규도 경기장 한쪽에서 복귀를 위한 굶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지난 4월 7일 SK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복사뼈 골절상을 당해 곧 고지 수술을 받았던 이용규가 18일 부터 본격적인 기술훈련에 들어갔다. (사진)

전날 병원 검진결과 재활 경과가 좋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용규의 복귀가 가시화된 것이다.

발목근력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 이용규는 오전 11시 30분 실내연습장으로 이동해 방망이를 들었다.

며칠 전 티배팅을 시작한 만큼 손바닥에 이제 막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규는 통증은 호소하면서도 정해놓은 개수를 채운 뒤에야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김준재 의무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뿔뿔이 뜯겨나갈 정도로 이용규는 이내 글러브를 집어들었다. 정면 타구 위주로 평고를 받으며 조심스레 수비 감각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캐치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한 이용규는 오후에도 웨이트와 러닝을 하면서 몸 만들기에 주력했다.

이용규는 “그동안 재활을 열심히 했던 만큼 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아직은 훈련할 때 숨도 차고, 운동 하나하나가 힘들다”고 재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라운드 복귀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이날 이용규는 반가운 얼굴도 만났다.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 만남을 갖고 후원을 약속했던 부산고의 외야수 정재훈이 무등기 출전을 위해 무등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이용규를 돕은 외야수를 꿈꾸는 부산고 정재훈은 이날 부천고와의 10회말 연장 승부치기에서 김창혁의 결승타 때 홈을 밟으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김여울기자 wool@·/사진=최현배기자 choi



## “김창혁 믿고 맡긴게 짜릿한 결승타로”

대회 첫 승부치기 승 거둔 부산고 김민호 감독

제16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부산고와 부천고의 16강 경기에서 대회 첫 승부치기가 펼쳐졌다.

8회까지 부천고를 상대로 1점차의 승마친 승부를 벌이던 부산고는 9회말 극적으로 1-1 동점을 만들어 승부치기를 이끌어냈다.

부산고를 맡고 있는 김민호 감독은 승부치기가 결정되는 순간 승리를 예감했다. 김민호 감독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부동의 4번 타자로 활약하며 ‘자갈치’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프로야구 출신의 사령탑.

이날 부산고 선발 박재현과 부천고 선발 박인규는 9회까지 1점씩만을 내주는 호투로 뜨거운 마운드 대결을 벌였다.

10회의 연장 승부, 부천고가 먼저 점수 사냥에 나섰다. 테이볼 세터 김호령·김광호가 1·2루에 선 뒤 희생 번트가 성공하면서 1사 2·3루가 됐다. 4번 김진웅이 11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지만 3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고, 5번 한대현마저 좌익수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쓰러아웃이 됐다.

이러던 부산고의 10회말 공격, 부천고의

바뀐 투수 이창하가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면서 베이스가 팍 찼고, 타석에는 4번 김창혁이 들어섰다. 앞선 4타석에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던 김창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익수 키를 넘기는 결승타를 때려내며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김 감독은 “김창혁이 충분히 희생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맡겼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정식대로 플레이를 했던 게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대회 첫 승부치기의 승자인 부산고는 19일 개성고와 4강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